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6, pp. 365-372,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6.365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융합적 관점

안은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EunKyong Ahn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일 대학 간호학과의 4학년 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의 18%를 설명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취업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 Subjects were 225 senior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2.0. As a result,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d job 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was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job seeking stress and accounted for 18% of the vari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for enhancing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in order to reduce job seeking stress in seni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Job seeking stress, Nursing professional valu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Senior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1. 서론

1.1 서론

1.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시절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다. 진로결정은 단순히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한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만족감을 경험한다[1].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정

*Corresponding Author : Eun-Kyong Ahn(aek@dst.ac.kr)
Received May 8, 2018
Revised June 4,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을 내리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거나 완수했다 하더라도 간호사가 된 후에 업무와 역할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진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처럼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의 중요성 때문에 직업행동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간호전문직관이다. 이들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소수이긴 하나, Hwang 등[6]은 간호전문직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Ko와 Kim[7]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보는 시각에 따라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진로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생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1].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취업스트레스이다[8]. 취업스트레스는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진로선택과 결정에 따른 부담감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로서 긍정적 기여를 하기도 한다[9, 10]. 그러나 높은 취업스트레스는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진로성숙도, 즉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1].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그 동안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간호학과 신설로 인한 간호대학 졸업 생 수 증가, 학점관리, 다양한 스펙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타 전공에 비해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성적에 따라 눈높이와 지원하는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간호대학생의 높은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의 어려움[5],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12],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하며[8, 13], 나아가 행복감을 저해하는 등[8]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스트레스는 대학 입학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14], 그 중에서도 구직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는 졸업 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15]. Cheon과 Lee[16]의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취업준비활동 자체만으로도 취업 예정자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취업준비활동은 취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바쁜 학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비간호보건계열의 학생들보다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며[17], 국가고시 준비와 취업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졸업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18]. Jeon과 Lee[17]는 졸업이 가까울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증진해야 하며, 학년별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고, Choe 등[8]은 고학년일수록 취업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11], 특히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3, 19]에 불과하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보고[3]와 간호전문직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6]는 있으나, 간호전문직관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조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2 연구 방법

1.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2.2 연구 도구

1)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 value)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20]. 본 연구에서는 Yeun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29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일반 사용이 허용된 도구이며,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Hwang 등[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8이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Betz 등(1996)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번안하여 일반사용이 허용된 Lee(2001)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24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원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Park과 Park(2018)[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2이었다.

3) 취업스트레스(Job seeking stress)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8]로 본 연구에서는 Jeong과 Roh[22]가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 1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미취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 등을 측정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Cho와 Jeon[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8이었다.

1.2.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D광역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의 4학년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학생을 임의 표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산출한 표본 수는 157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2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5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내외였다.

1.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배포한 설명서를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만을 대상자로 하였다. 설명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익명성 보장,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함, 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비용이나 위험 등의 불이익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2. 연구 결과

2.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희망진로 분야는 병원이(198명, 88%)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 정도는 보통이하(180명, 8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본인 스스로(60명, 26.7%)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능력(99명, 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Items		N	%
Desired career path	hospital	198	88
	a public officer	14	6.2
	graduate school	1	0.4
	a school nurse	1	0.4
	etc.	5	2.2
	no reply	6	2.7
Degree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not at all	52	23.1
	little	59	26.2
	average	69	30.7
	a little bit more	41	18.2
	enough	3	1.3
	no reply	1	0.4
A helpful factor for employment	family	28	12.4
	friends	34	15.1
	professor	16	7.1
	internet	45	20
	school	11	4.9
	self	60	26.7
	etc.	11	4.9
	no reply	20	8.9
Influencing factor for employment	ability	99	44
	appearance	3	1.3
	academic clique	57	25.3
	luck	33	14.7
	etc.	17	7.6
	no reply	16	7.1

2.2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정도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65±0.46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3.888±.539)과 간호계의 역할(3.838±.516)에 대한 점수가 높은 반면, 사회적 인식(3.431±.596)과 간호의 독자성(3.212±.996)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42±0.4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 중 목표선택(3.581±.466)과 직업정보(3.463±.510) 영역의 점수가 높은 반면, 미래계획(3.152±.571) 영역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87±0.5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of variables (N=225)

Variables	Domains			M	SD
	Themes	M	SD		
Nursing professional value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3.78	.54	3.65	.45
	Social awareness	3.43	.6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89	.52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84	.52		
	Originality of nursing	3.21	.99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Goal Setting	3.58	.47	3.42	.43
	Information gathering	3.46	.51		
	Problem solving	3.23	.70		
	Career planning	3.15	.57		
Job seeking stress				2.87	.55

2.3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간호전문직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r=-.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실시를 위해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잔차모형은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각각 1.101이고 Durbin-Watson 값은 1.956으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의 18%(F=25.661, p=<.001)를 설명하였고, 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43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225)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 valu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Job seeking stress
Nursing professional value	1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30 (p=.<001)	1	
Job seeking stress	-.11	-.43 (p=.<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Job seeking stress (N=225)

variables	Adjusted R^2	β	F/t	p
	.18		25.66	<.001
Nursing professional value		.02	.34	.735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44	-6.92	<.001

3. 논 의

본 연구 대상자는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을 본인, 인터넷, 친구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와 학교의 도움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여러 지지체계 중 교수의 지지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Choi와 Jung[3]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교수와 학교로 부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편이성과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이나 친구의 의견을 선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한 정보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선별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감 강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담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며[24], 직접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와 사회적 지지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25]. 한편 본 연구 대상자들은 가족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의 격려와 지지는 간호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Koo[1]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취업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능력, 학벌, 운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외모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보건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과 Lee[17]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나, 간호대학생 대상의 Choe 등[8]의 연구에서는 외모스트레스 인지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대상의 Ko와 Kim[7]의 연구에서 3.67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하부 영역의 평균 점수가 간호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전문직 자아개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간호는 전문적인 직관력으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피고 돌보는 고유한 서비스라는 문항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간호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긍정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3.431)과 간호의 독자성(3.212)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직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격려를 통해 만족스러운 정신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를 받는 전문직업이라는 문항과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간호사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으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대상의 선행 연구[3]에서 3.4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 중 목표설정의 점수가 가장 높고 미래계획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Kim[19]의 연구에서는 목표설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목표설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16]하므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계획의 점수가 낮았고, 특히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 대학에서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으로 인해 한 학기의 절반은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생활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력서 준비를 도와주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2학기에 지원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아직 직접 작성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이런 결과를 고려한 취업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87점으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도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19]의 연구에서 2.94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와 Jung[3]의 연구에서 2.47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7]에 의하면, 간호계열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높고, 취업처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 종합병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의 규모는 각기 다르지만 성적과 같은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나름대로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지도와 취업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체 영역 중 취업준비 부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희망하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들은 본인의 취업준비가 부족하고 원하는 분야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으로,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자의 80%는 본인의 취업 준비 정도를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대학생이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남들만큼 준비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진로결정을 망설이며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1]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 본인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Hwang 등[6]의 연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Choi와 Jung[3], Yang과 Lee[26]의 연구와 일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한 예측과 달리 간호전문직관과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었으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상관성이 약했다는 Ko와 Kim[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면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의 18%를 설명하였고, 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 2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설명력이 낮았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더 적게 받고[28],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관계[29]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취업을 위한 전략과 행동을 취하고[30], 취업준비행동이 늘어날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17].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직관이 높고[31], 취업스트레스가 낮다[32]. 이러한 점에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취업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한 예측과 달리 간호전문직관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와 간호전문직관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H. Y. Koo, O. K. Park & K. W. Jo. (2017). Experience of Career Decision of Korea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68-178. DOI : 10.4094/chnr.2017.23.2.168

[2] M. Worthington, Y. Salamonson, R. Weaver & M. Cleary. (2013). Predictive validity of the Macleod Clark Professional Identity Scale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3(3),* 187-191. DOI : 10.1016/j.nedt.2012.01.012

[3] H. J. Choi & K. I. Jung. (2018).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 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61-72. DOI : 10.11111/jkana.2018.24.1.61

[4] D. Chaney, M. S. Hammond, N. E. Betz & D. Multon. (2007).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Scale-SF with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94-205. DOI : 10.1177/1069072706298020

[5] S. H. Kim & S. H. Lee. (2015). The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1),* 63-72. DOI : 10.7475/kjan.2015.27.1.63

[6] E. H. Hwang, C. M. Hong & S. J. Shin. (2016).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3),* 1729-1740.

[7]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8]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 H. J. Park.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22-131. DOI : 10.5807/kjohn.2015.24.2.122

[9] M. J. Cho. (2010).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10] E. J. Kim & K. W. Choi. (2012).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9(2),* 231-239.

[11] S. M. Ahn & K. H. Kim.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 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55-565. DOI : 10.5762/KAIS.2018.19.1.555

[12] H. S. Park, Y. J. Bae & S. Y. Jeong.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13] R. I. Hwang. (2012).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15-226.

[14] Y. L. Cho & S. H. Mun. (2017). A Case Study on Long-Term Unemployed Young Adults' Job Searching Aspects: focusing on their stress and coping resour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9),* 145-175. DOI : 10.21509/KJYS.2017.09.24.9.145

[15] M. H. Han. (200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1),* 81-86. DOI : 10.22156/CS4SMB.2017.7.1.081

[16] M. B. Cheon & G. J. Lee. (2013). A study on the factors of employment stress grauand in Korea: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 efficacy. *Korean Coope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20(6),* 191-214

[17] H. S. Jeon & M. R. Lee. (2016).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43-651.
DOI : 10.5762/KAIS.2016.17.12.643

[18] S. H. Choi & H. Y. Lee. (2013).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808-816.
DOI : 10.5392/JKCA.2013.13.12.808

[19] Y. H. Kim. (2013).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817-828.
DOI : 10.5392/JKCA.2013.13.12.817

[20]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21] M. S. Park & J. W. Park (2018). In the Fusion Era of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79-87.
DOI : 10.22156/CS4SMB.2018.8.1.079

[22] E. S. Jeong & A. Y. Roh. (2001).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students Guid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3,* 85-101.

[23] S. H. Cho & G. S. Jeon. (2015).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 west south area.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2),* 79-89.
DOI : 10.1754/kjsr.2015.23.2.79

[24] A. K. H. Seren, F. E. Bacaksiz & U. Baykal. (2017). Career orientations of nursing students: A comparison of State and Private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10(1),* 273-284.

[25] O. S. Oh.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g career decision-mal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5),* 107-130.
DOI : 10.21509/KJYS.2017.05.24.107

[26] S. A. Yang & H. S. Lee.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27] Y. H. Ko & E. H. Park. (2018).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the senior students'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73-83.
DOI : 10.14400/JDC.2018.16.1.073

[28] K. S. Chang, H. H. Lee, I. S. Kim, Y. M. Hong, N. S. Ha, B. H. Kong, M. J. Shin & Y. S. Kang. (2009). *Ethics & Profession of Nursing.* Seoul : Hyunmoonsa

[29] H. J. Cho & J. Y. Lee. (2015). A study 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498-8508.
DOI : 10.5762/KAIS.2015.16.12.8498

[30] Y. I. Han. (2016).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144-152.
DOI : 10.5762/KAIS.2016.17.3.144

[31] Y. M. Kwon & E. J. Yeu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32] E. Y. Cho, J. A. Kim, J. Y. Kim, H. J. Kim, E. S. Ra & H. Y. Lee. (2016).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1),* 35-43.
DOI : 10.7236/JCCT.2016.2.1.35

안 은 경(EunKyong Ahn) [정회원]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리더십, 간호교육, 간호윤리
- E-Mail : aek@dst.ac.kr